

韓國人의 來世觀에 관한 探索的 研究

이누미야 요시유키* · 최일호** · 한성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의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문화심리학자들이 간과해 왔던 내세관을 질적인 방법에 의해 유형화, 범주화하고 이를 통해 내세관 유형별 내부구조를 밝히는 데 있다. 연구1에서는 근거이론 접근법(Grounded Theory Approach)에 의거한 질적 방법을 통하여, 내세관에 관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범주를 추출하였다. 첫째, 내세관 유형이라는 범주에서는 아홉 가지 유형들, 즉 소멸형, 현세지향적 환생형, 내세지향적 환생형, 저승형, 하늘나라형, 천국지옥형, 천당연옥지옥형, 다층이동형, 그리고 불분명형이 구별되었다. 둘째, 현세와 내세의 관계라는 범주에 대해서는 현세와 내세의 시간적 관계(인과응보론, 신앙결정론, 절대예정론), 현세와 내세의 공간적 관계(단절-영향)라는 개념을 포착하였다. 셋째, 내세관의 情意的 측면이라는 범주에서는 내세에 대한 관심도, 내세관의 확고성, 정서적 색채라는 속성들이 추출되었다. 넷째, 일반인의 '내세관 심리학'이라는 범주에서는, 내세관의 기원에 관한 '심리학'과 내세관의 영향에 관한 '심리학'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구별할 수 있었다. 연구2에서는 연구1에서 추출된 내세관의 유형과 특성들을 바탕으로 내세관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구성하여, 내세관 유형의 구성 비율과 내세관 유형별 내부구조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내세관, 근거이론 접근법, 한국인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후세계는 존재하는 것인가? 만약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그 세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나름대로 사후세계에 관한 표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후세계 또는 초월적 세계에 대한 표상체계를 포함하는 내세관이 이 세상을 해석하는 인지양식이나 생활 방식, 생명윤리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과 실증적 자료들이 계속 제시되어 왔다.

Weber(1920)는 합리적인 산업경영을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근대초기 서구에서 발흥하게 된 토대에는 '자본주의 정신'이 있었고 이것의 핵심에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존재했음을 보여주었다. 즉 근

면, 절약, 주도성 등의 덕목들을 하나의 통일된 행동체계로 만들어 낸 초기 자본주의 정신의 이면에는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세속적인 금욕윤리가 있었고, 이것은 자본가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의식에까지 자본주의 정신을 배양시킨 원동력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세속적 금욕윤리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 天職(Beruf)이라는 개념과 결합된 절대 예정설적인 내세관이었다(Weber, 1920). 루터의 성서 해석에서 유래한 천직의식은 현세의 직업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으로서 인간은 자신의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천직의식은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하여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미리 확인할 방도는 없다는

¹⁾ 본 논문의 초고를 읽고 많은 비평과 여러 가지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칼뱅주의의 내세관과 결합하여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서 자신의 직업에서 성실한 수행과 성공을 위해 노력하게 하였다. 이처럼 종교적 신념체계나 내세관의 영향은 단지 종교적 영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한 사회의 경제체제와 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등, 인간의 삶과 깊숙이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내세관에 따라 장기이식 및 장기기증에 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연구보고도 있다(池口, 1998; 丹下, 1998). 즉 영혼의 영속성을 믿는 사후생활의 존재에 대한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헌혈과 각막, 골수, 장기 등의 신체부위제공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丹下, 1998), 윤회라는 내세관을 갖는 불교적 사고가 강한 사람일수록 장기이식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신체를 조상으로부터 계승된 것으로서 중요시하고 시신을 招魂再生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 유교적 사고가 강한 사람일수록 장기이식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池口, 1998). 이러한 연구는 내세관이 단지 사후세계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깔려 있는 내세관의 차이가 이 세상을 해석하는 인지양식들, 즉 귀인, 통제소재, 비현실적 낙관성 편향,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신념 등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계속되어 왔다. 예를 들면, 민족지학자들은 오랫동안 해당 지역인들의 사물과 사건의 원인 설명패턴에 대해 기록해 왔는데, 그들은 이것을 형이상학을 포함한 문화적 상징체계의 반영으로 해석하였다(Morris & Peng, 1994). Rotter(1966)는 '행동은 목표에 대한 가치와 기대의 함수'라는 가정 하에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내외통제소재(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라는 개념을 제창했다. 그런데 개인의 행동과 행동의 결과(강화)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인지양식인 통제소재는 내세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내적 통제의 신념, 즉 자기가 부여받은 능력을 다 발휘해서 노력하면 그것에 따른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믿는 신념의 배경에는 신의 가호를 믿는 일신교적 내세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인도인의 경우처럼 운명결정론, 즉 조상이나 다른 신들, 그리고 자기의 전생에 의해 현재 생활의 화복이 결정된

다는 신념은 외적 통제경향의 토대가 될 수도 있다(Gilbert & Krull, 1988).

그리고 Lerner(1980)에 의하면 구미사회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은 보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보상을 받고,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 벌을 받는 공정한 세계라는 신념(belief in a just world)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자신의 통제감의 환상(illusion of control)을 보호하는 한편, 사건이나 사고의 피해자를 책망함으로써 그 사건, 사고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신념은 사후세계 또는 초월적 세계에 대한 표상체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유물론적 배경 때문에 사후세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불교적 배경 때문에 인과응보를 믿는 사람들이 더 강한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내세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세에서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보다 통제감의 환상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을 필요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누미야·최일호·윤덕환·서동효·한성열(1999)은 한국인의 비현실적 낙관성 편향(unrealistic optimism bias)을 연구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건들의 발생 가능성을 무종교인들보다 낮게 추정하는 배경에는, 조상이나 여러 신들, 그리고 전생의 업의 영향을 부정하고 신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는 내세관이 존재할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세관과 생활 방식, 인지양식, 생명윤리 등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견해와 실증적 연구들은 내세관이 심리적 과정의 일정한 부분을 설명하는 분석의 틀로서 발전할 가능성을 갖는 개념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최근 문화심리학은 문화와 심리적 과정 또는 문화와 행동과의 관련성을 중요시함으로써, 심리적 과정과 행동의 인류 보편성을 표방하는 주류 심리학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Triandis(1990) 등의 개인주의-집합주의 개념이나 Markus와 Kitayama(1991)의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과 같은 개념이 동-서양 문화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심리적 과정의 차이를 해석하는 일반적 분석 틀로 제시되고 있

다. 인간관의 한 측면인 개인주의-집단주의 개념이나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등의 개념이 주목되어 있는 데 비해 문화의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간과되어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이다. 종교는 그 종교가 속한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최준식, 1998). 특히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관이나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의 형성은 기본적으로 종교의 몫이다. 그래서 어떤 사회를 이해하려 할 때 종교를 간과한다면 그것은 절반 이상을 놓친 셈이 된다. 만일 서양을 이해하려 할 때 기독교를 무시한다면 서구에 대한 전체적 이해는 그만두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최준식, 1998).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자들은 한국인의 내세관에 주목하였다. 즉, 여러 종교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내세관과 그 심리적 귀결을 이해하는 것이 한국문화 속에 사는 한국 사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 한국인의 마음속에 있는 내세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념화하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념화와 척도 구성은 또 하나의 문화심리학적 분석 틀이 될 것이다.

한 사회의 문화적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 사회적 표상의 공유정도에 따라 최소 두 가지 차원을 구별해야 된다고 본다. 하나는 사회 전체를 분석의 단위로 삼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몇 개의 하위문화로 나뉘어서 분석해야 할 경우이다. 한국인의 내세관과 심리적 과정 및 행동의 관계를 연구할 때는, 단일의 내세관이 공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내세관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의 단위는 각각의 하위문화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문화심리학자들은 심리학적 현상과 그 개념의 공간적-시간적 보편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인류 전체를 심리학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의 문제점을 제기해왔으나, 하나의 문화는 동질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았다(한규석·신수진, 1999). 그러나 한 문화 내에서도 문화적 요소의 공유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고 문화적 요소의 질적 차이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하나의 문화를 어떤 기준에 따라 몇 개의 하위문화 집단으로 나누어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기준 가운데는 성차, 세대차, 계층차, 지역차 등이 있는데, 다양한 종교적 전통이 공존하는 한국에서는 내세관이라는

차원도 하위문화를 구성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상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복합적 변인인 종교자체를 하위문화 구성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세관이라는 보다 한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내세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종교의 신자들도 그 종교가 제시하는 내세관의 내면화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유물론적 내세관뿐만 아니라 조상숭배를 포함한 유교적 내세관, 또는 여러 신들이나 영혼을 강조하는 무속적 내세관 등 다양한 내세관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 내세관 유형에 따라 심리과정에 대한 영향도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종교인뿐만 아니라 무종교인도 다 포함해서 분석할 수 있는 내세관이라는 측면의 개념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내세관을 연구 주제로 삼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문화심리학 영역에서 심리현상이나 행동의 문화간 차이를 설명하는 틀로서 개인주의/집합주의(Triandis, 1990),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Markus & Kitayama, 1991), 준거적 물성-자기/추론적 마음-자기(최상진·김기범, 1999)와 같은 인간관을 주로 고려해왔으나, 내세관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가 거의 없어서 문화의 중요한 요소인 이 측면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국인의 내세관을 연구함으로써 현실 삶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생명윤리의 문제(장기이식 및 장기기증에 관한 태도) 및 귀인, 통제소재,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신념, 비현실적 낙관성 편향과 같은 인지양식의 문화간 차이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틀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그 동안 한국에서 진행되어왔던 종교 관련 연구의 대상은 주로 제도화된 특정 종교의 신도들에 한정된 경향이 있었는데, 종교의 세속화 추세(오경환, 1990)를 감안할 때, 연구의 대상을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내세관이라는 개념의 설정과 그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내세관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내세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의 내세관을 질적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제작하여 내세관의 하위 내용을 개념화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연구 1, 2를 통해 내세관의 내용과 유형을 파악하고, 내세관 유형의 구성 비율과 내세관 유형별 내부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후세계에 대한 표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내세관의 유형과 특성을 질적 방법을 사용해서 탐색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개념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질적 분석의 틀로서 Glaser와 Strauss(1967) 등이 제안한 근거이론 접근법(Grounded Theory Approach)에 따라 한국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세에 관한 다양한 생각을 분석하고, 이것을 개념화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연구 2에서는 질적 방법을 통해서 추출된 내세관의 유형과 특성들을 바탕으로, 내세관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구성하여, 내세관 유형의 구성 비율과 내세관 유형별 내부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1

방법

조사 대상자

연구 1에는 D여대 평생교육원에서 인간관계론을 수강하는 20대에서 50대의 여성 174명이 참여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사후세계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쓰게 하였고 그 언어적 기술을 분석자료로 삼았다.

내용분석의 절차

본 연구에서 채용한 근거이론 접근법(Grounded Theory Approach)은 주로 어떤 현상 뒤에 놓인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밝히고 이해하는 데 사용되며, 또 양적인 방법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현상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이용된다(Strauss & Corbin, 1990). 그리고 이 접근법에서는 미리 도출된 연구가설로서의 이론이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근거를 둔 개념 및 이론을 발견적으로 개발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둔다(Glaser & Strauss, 1967; 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 접근법에서 권장하는 표본추출방법인 이론적 표본추출법(theoretical sampling)에 따라 초기의 자료분석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자료를 누적적으로 분석하였다. 근거이론 접근법은 표본의 특성을 모집단으로 일반화시키기 위해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무작위 표집 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추구하는 양적 방법과는 달리, 탐색적 연구를 위해 추출된 개념의 대표성 및 개념간의 관계의 대표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자료분석 과정에서는 근거이론 접근법에서 권장하는 코딩 절차를 참조하였다. 이 접근법에서는 자료에 근거를 둔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자료의 개념화, 범주화 과정인 코딩 작업을 통해 속성과 차원을 구비한 범주를 개발하고(개방코딩 open coding), 범주간의 관계에 대한 반복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일련의 패러다임 모형을 개발한 다음(축코딩 axial coding), 그것을 귀납적-연역적 추리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자료와 대조시켜 이론의 근거를 구성한다(선택코딩 selective coding). 본 연구에서는 속성과 차원을 구비한 범주를 개발하는 개방코딩(open coding) 단계까지 근거이론 접근법을 사용하고, 이후의 과정은 연구2를 통한 계량적 방법으로 대체하였다. 이것은, 분석의 대상이 된 자료가 자유 기술문임으로 연구자들이 개념화한 모든 항목에 대해 모든 사람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어떤 개인의 어떤 범주의 어떤 속성 차원 상의 위치를 구체화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개념간의 관계를 정립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근거이론 접근법의 개방코딩(open coding) 과정에서는 먼저 자료를 부분으로 해체하고 면밀한 검토 작업을 통해 현상에 이름을 붙인다(개념화). 이 때 질문법과 비교법이 주된 기법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과 그것은 유사한가 아니면 다른가?' 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모든 부분들에 명칭을 부여한다. 다음으로 똑같은 현상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개념들을 그룹 짓는다(범주화). 마지막으로 범주의 특성이나 특질을 연속성을 갖는 차원들로서 상세화 하는 과정을 거친다(범주 속성의 상세화).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참고로 하여 내세관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결 과

본 연구자는 내용분석을 하는 데 있어 특정한 이론에 의거한 폐쇄적 분석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내세관에 대한 일반인의 심리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술된 자료로부터 분석의 틀을 추출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Glaser와 Strauss(1967) 등이 주장하는 근거이론 접근법(Grounded Theory Approach)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Henwood & Pidgeon, 1992). 초기의 내용분석을 통해 나타난 범주들을 상위 범주로 조직화한 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범주를 추출하였다. 즉 (1)내세관 유형 (2)현세와 내세의 관계 (3)내세관의 情意的 측면, 그리고 (4)일반인의 내세관 '심리학'이라는 범주들을 구분할 수 있었고, 이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내세관 유형이라는 범주에서는 아홉 가지 유형들, 즉 소멸형, 현세지향적 환생형, 내세지향적 환생형, 저승형, 하늘나라형, 천국지옥형, 천당연옥지옥형, 다층이동형, 그리고 불분명형이 구별되었다. 둘째, 현세와 내세의 관계라는 범주에 대해서는 현세와 내세의 공간적 관계, 현세와 내세의 시간적 관계라는 두 가지 개념을 포착하였다. 현세와 내세의 공간적 관계라는 속성은 단절-영향이라는 차원을 가지며, 현세와 내세의 시간적 관계에는 인과응보론, 신앙결정론, 절대예정론이라는 세 가지 하위 속성들이 포함된다. 셋째, 내세관의 情意的 측면이라는 범주에서는 내세에 대한 관심도, 내세관의 확고성, 정서적 색채라는 속성들이 추출되었다. 넷째, 일반인의 내세관 '심리학'이라는 범주에서는 내세관의 기원에 관한 '심리학'과 내세관의 영향에 관한 '심리학'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구별할 수 있었다. 다음에서는 이 순서대로 자료분석의 근거가 되는 응답사례를 제시하면서 각 범주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1) 내세관 유형

내세관은 사후세계의 존재 여부나 존재 양상과 관련된 네 가지 기준, 즉 ㉠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있음-없음), ㉡ 형태적 동일성(연속-전환), ㉢ 공간적 지향성(현세지향-내세지향), ㉣ 공간의 윤리성이라는 분류기준에

따라 여덟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표 1 참조).

소멸형: 먼저 분류기준㉠은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판단기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이 기준은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고 인간은 사망 이후 소멸될 것인지, 아니면 죽은 다음에도 사후세계가 존재하여 영속적(永續的)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신념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의 배경에는 소박한 유물론적 철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특정한 사상적 배경 없이 막연하게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보아, 이들을 소멸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소멸형으로 분류되는 응답사례는 “죽으면 흙에 묻히게 되고 그 후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죽는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한다”, “사후세계는 없는 것 같다” 등으로, 이와 같은 신념들을 본 연구자들은 소멸형으로 명명하였다.

환생형: 다음으로 분류기준㉡에서 사후세계가 존재하며 죽은 다음에도 인간은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형태적 동일성 차원에서 두 가지로 분류된다(분류기준㉢). 즉 형태적 동일성이 연속(連續)될 것인지 아니면, 현세에서의 형태가 전환(轉換)될 것인지에 관한 신념을 기준으로 환생형과 기타의 유형이 구별된다. 사후세계에 대한 견해에서 “난 영혼보다는 환생을 할 것 같다.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혹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걸루 생각을 하고 싶다”, “나의 사후세계는 엄마 뱃속이다. 난 윤회라는 것을 믿는다. 아니 다시 태어나는 것을”과 같은 생각의 경우를 환생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환생 또는 윤회사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망을 계기로 형태적 동일성이 대폭 상실되며 동물이거나 다른 신체 등으로 전환된다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으나,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三界六道에 윤회한다는 불교적 윤회사상과는 달리 인간과 동물에 한정된 윤회사상만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현세지향적 환생형이라고 이름 부쳤다. 그러나 불교적 윤회사상과는 별도로 다른 세계의 존재도 동시에 상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즉 “사람이 죽으면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 세계에서도 비슷하게 살고 있을 것 같다. ……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 다시 현생으로

보내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 그래서 나쁜 일을 한 사람, 착한 일을 한 사람, 입력된 모니터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현생으로 다시 환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환생이라는 개념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세계의 존재도 포함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세지향적 환생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여기서 사용한 현세지향이나 내세지향이나 하는 기준은 공간적 지향성이라고 이름지었다(분류기준⑥).

저승형: 분류기준⑥에서 형태적 동일성이 전환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사후세계의 공간적 구조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사후세계가 이 세상처럼 선과 악, 행복과 불행이 공간적으로 공존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분립되어 존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기준(분류기준⑦)으로 **저승형**과 기타 유형들을 구별했다. 분류기준⑧은 사후세계라는 곳에서 윤리적 선별이 어느 정도 시행되는지에 관한 신념의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간의 윤리성이라고 하였다. 저승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처럼 사후에도 평화로움, 그렇지 않은 것, 슬픔, 기쁨, 행복, 고통 등이 모두 존재할 것 같다”, “우리의 조상들과 친구들이 살고 있고 각종 죽은 생명체들이 뒤섞여 살고 있을 것 같다”와 같은 내세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늘나라형: 저승형과는 달리 사후세계란 선과 악, 행복과 불행이 분립되어 존재하는 윤리적 공간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그 분립의 양식에 따라 하늘나라형, 천국지옥형, 천당연옥지옥형, 다층이동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늘나라형**에는 “왠지 죽음 후의 세상은 온통 하얗게 되어 있을 것 같고 살았을 때와 같이 가족단위로 있을 것 같다. 슬프거나 괴롭고 나쁜 일은 없을 것 같고 행복하기만 할 것 같다”, “사후세계는 빈곤도 없고, 시기도 없고, 평등하며 서로들을 아끼며 사랑하는 세상이 아닐까”와 같이 악과 불행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사후세계만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분류되었다.

천국지옥형: 사후세계를 일원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상화된 세계로 보는 하늘나라형의 사람들과는 달리, 사후세계는 선과 악, 행복과 불행이 양극으로 분립되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지옥형**으로 분류되었다.

천국지옥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내세를 윤리적으로 이원화된 공간으로 보는 내세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저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곳을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사후에 자신의 육체 위를 떠도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자기들의 운명을 바꾸거나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

천당연옥지옥형과 다층이동형: 선과 악, 행복과 불행이라는 이원적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천국지옥형의 사람들과는 달리, 천국과 지옥사이에 어떠한 중간적 단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세 개의 층을 구별하는 경우를 **천당연옥지옥형**, 그보다 많은 층을 상정할 경우를 **다층이동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천당연옥지옥형에 속하는 사람은 “천당과 지옥 그리고 천당과 지옥의 중간 단계가 있지 않을까 한다”, “착한 사람은 천당에서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서 벌을 받으며 덕을 닦아 채워야 하는 사람이 연옥을 거친다는 것은 …”과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며, 다층이동형에 속하는 사람은 “죽은 후에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단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듯이 아주 고통스러운 모든 단계. 예를 들자면, 불바다를 통과해야 된다거나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 또 물바다 또는 가시밭 길. 이런 단계를 거치면 그야말로 너무 아름다운 천국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상과 같이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있음-없음), 형태적 동일성(전환-연속), 그리고 공간적 지향성(현세지향-내세지향)과 공간의 윤리성(혼합, 이상적 일원, 선악 이원, 삼원, 다원)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세워, 계통적으로 여덟 가지의 유형 즉 **소멸형, 현세지향적 환생형, 내세지향적 환생형, 저승형, 하늘나라형, 천국지옥형, 천당연옥지옥형, 다층이동형**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 유형들 외에 사후세계에 대해 생각은 했으나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자기의 소망으로서의 사후세계만을 묘사한 사람들도 있다고 보아, 이러한 경우를 **불분명형**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이외에도 단절도 아니고 영속도 아닌 시한부 영혼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 실체가 없는 꿈의 연속이라고 보는 사람 등이 있

표 1. 내세관의 분류

	㉓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	㉔ 형태적 동일성	㉕ 공간적 지향성	㉖ 공간의 윤리성	유 형
내세관	없음	전환	현세	혼합	1. 소멸형
			내세		2. 현세지향적 환생형
	있음	연속		분립	3. 내세지향적 환생형
					4. 저승형
				일원	5. 하늘나라형
				이원	6. 천국지옥형
				삼원	7. 천당연옥지옥형
				다원	8. 다층이동형

었으나 각각 한 사례뿐이었기 때문에 유형으로서 취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세지향적 환생형과 내세지향적 환생형, 천당연옥지옥형과 다층이동형 같은 경우 하나의 유형으로 통괄할 것인지에 관해 다소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잠정적으로 아홉 기지의 유형을 설정하고 각 유형의 특성차원에 유사성이 있는지를 감안하여 나중에 다시 유형의 수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2) 현세와 내세의 관계

사후세계의 존재 여부나 존재 양상에 따라 분류한 내세관 유형이라는 범주 이외에 내세관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범주들을 추출하였다. 그 중 하나가 현세와 내세의 관계라는 범주인데, 이것은 다시 현세와 내세의 공간적 관계와 현세와 내세의 시간적 관계라는 두 개의 하위범주로 나누어진다.

현세와 내세의 공간적 관계: 현세와 내세의 공간적 관계에 대한 견해는 내세는 현세와 중복되어 있고 때로는 사후세계의 존재가 영향력도 행사한다고 믿는 사람(“사후 세계 사람들이 가족이나 돕고 싶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해를 주기도 하는 것 같다”)으로부터 내세에서 현세를 관찰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하늘에서는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워 하지만 손 쓸 방법이 없는 상태일거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즉 현세와 내세의 공간적 관계라는 내세관의 속성은 영향-관찰-단절이라는 차원을 갖는 것으로 보였다.

현세와 내세의 시간적 관계: 현세에서의 행동이나

태도가 자신의 사후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세 가지의 관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선한 삶을 산 사람은 반드시 사후세계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보상을 받으며 악한 삶을 영위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지금 죄를 지으면 이번 생이든 다음 생이든 반드시 그 빛을 갚아야만 한다”, “살면서 지은 죄는 자손 대대로 죄를 갚아야만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된다”와 같은 **인과응보론**이다. 이러한 인과응보의 개념은 표현 양식이나 빈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소멸형을 제외한 모든 내세관에서 발견되었다. 그런데 “물론 교회의 가르침대로 잘잘못을 선별해 보내지는 곳이 사후세계라고는 절대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인과응보의 개념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인과응보론이 주로 자기의 행동에 중점을 두는 견해라고 한다면 신앙이라는 자신의 태도에 중점을 두는 견해도 있다. 즉 “이 세상의 창조주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믿고 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성령에 의해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갈 마지막 거처이기 때문이다”와 같은 신념인데, 이것을 **신앙결정론**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신앙결정론을 부정하는 견해 또한 존재한다.(“소위 전도사니 집사니 하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 많고 이중 인격자가 많은데 믿음으로 천국 가고, 교회 다니지 않아도 불쌍한 이웃을 돕는 착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으로 간다니, 그런 억지가 어디 있을까?”)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늘에 올라가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지옥으로 갈 것이고 믿는 사람들도

생명책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와 같은 절대예정론에 관한 견해도 있었다.

(3) 내세관의 情意的 측면

내세에 대한 관심도: 각자가 형성한 내세관은 관심도, 확고성, 정서적 색채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내세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 사후세계라는 표상을 구성하는 데 투자되는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내세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나는 특정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죽은 후의 사후세계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후세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람까지 일련의 차원을 형성한다.

내세관의 확고성: 사후세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한다고 해도 형성된 내세관의 확고성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자신의 내세관에 대한 확신의 정도는 사후세계를 묘사할 때의 어미(…이다, …일 것이다, …이 아닐까 등)에 주로 나타나고 “기독교적 사상을 믿고 있는 나로서는 사후세계를 믿는, 아주 굳게 믿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간혹 나도 내가 믿는 종교에서의 사후세계의 보장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 “사후세계에 대해 ‘내 생각은 이렇다’ 할 정도로 결론을 내린 적은 없었다”와 같은 직접적 표현에서도 드러난다. 내세관을 묘사한 문장으로부터 내세관의 확고성을 추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내세에 대한 관심도와는 별개의 차원으로서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다.

내세관의 정서적 색채: 내세에 대한 관심도와 확고성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내세에 대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내세에 부여된 정서적 색채는 다양하다. 먼저 “가끔은 그 저승의 세계가 무서워 밤조차 겁이 날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은 어쩌면 가장 내면 깊은 곳에 두려운 존재로서의 사후가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슬픔’이 먼저 생각한다”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생각만 해도 정말이지 행복하다”, “사후세계는 희망이라는 이름과 같이 그림자로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가깝게 느껴진다”와 같이 긍정적 정서를 표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복합적인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즉 “그런데 지금도 그 사후세계는 신비스럽기도 하고, 많은 의문도 가고, 공포감도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불안과 호기심이 생긴다”, “가끔씩은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해 동경하기도 하며 막막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4) 일반인의 내세관 ‘심리학’

내세관의 기원에 관한 ‘심리학’: 자신의 내세관을 서술하면서 부가적으로 내세관의 기원에 관한 ‘심리학적’ 해석을 기술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본 연구자들은 내세관의 기원에 관한 심리학이라는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예를 들어, 응답자들 중에는 현실에 대한 부적응과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내세관의 기원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즉 “죽은 다음 세계를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세계(현 세계)가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다”, “인간은 미래를 불안해 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죽은 후의 세계를 두려워하므로 무언가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이치이므로 종교에서 그것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와 같은 응답이 있었는데 이러한 응답에 기초하여 내세관의 기원에 관한 심리학이라는 차원을 설정하였다.

내세관의 영향에 관한 ‘심리학’: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내세관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데 영향을 줄 것인가, 또한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어떤 영향일 것인가에 대한 보통사람들의 해석이나 견해의 차원이다. 이러한 견해는 대부분 긍정적 영향을 인정하는 것들이었으며 부정적 정서의 경감(“사후세계의 존재가 죽음이라는 공포를 어느 정도 반감한다고 생각한다”)과 도덕성 향상(“사후세계는 정말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현 세계에 대해서 어쩌면 바른 삶을 사는 데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모든 사람이 죽어서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과 같은 험악한 세태와 세계는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또 살면서 지은 죄는 자손 대대로 죄를 갚아야만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된다는 것을 알면 누가 죄를 지으려 노력을 하겠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내세관의 영향 자체를 부정하는 “죽어서 끝이건 그렇지 않건, 세상사는 데

에는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견해도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Glaser와 Strauss(1967, 1990) 등이 주장하는 근거이론 접근법(Grounded Theory Approach)에 의거한 질적 방법을 사용해서, 내세관에 대한 자유 기술 내용을 분석하여 내세관 유형과 특성에 관한 다양한 표상들을 포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세관을 분류할 때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있음 - 없음), 형태적 동일성(연속 - 전환), 공간적 지향성(현세지향 - 내세지향), 공간의 윤리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세워 여덟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나 다른 분류 기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현세와 내세의 시간적 관계에는 인과응보론과 신앙결정론이라는 비교적 독립적인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을 구별하는 것도 하나의 분석 틀이 될 것이다. 인간의 윤리적 성장 또는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인과응보론은 자력과 법을 중요시하는 입장이고 신앙결정론은 타력과 신의 은혜를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세지향적 환생형, 내세지향적 환생형, 저승형, 하늘나라형, 천국지옥형, 천당연옥지옥형, 다층이동형, 그리고 불분명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인과응보론과 신앙결정론의 유무 내지 확신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자력공정 - 타력부정, 자력부정 - 타력공정, 자력공정 - 타력공정, 자력부정 - 타력부정)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세와 내세의 공간적 관계라는 내세관 속성은 영향 - 단절이라는 차원을 갖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내세관의 확고성을 기준으로 삼는 분류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형구분은 유형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심리학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주로 사후세계의 존재 구조에 착안하여 여덟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사후세계의 존재 구조에 대한 신념은 현세와의 관계에 대한 신념의 전제가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내세관을 현세와 내세의 관계에 따라 분류하는 것보다 내세 자체의 존재 양상을 기

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사후세계의 존재 구조에 대한 신념과 현세와의 관계에 대한 신념은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고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즉, 내세 자체의 존재 양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아홉 가지의 유형은 각각 특정한 현세와 내세의 관계에 대한 신념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택한 분류는 현세와 내세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사후세계에 대한 확신은 중요한 분류기준일 수 있으나 믿는 사후세계의 양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사후세계가 이 세상처럼 선과 악, 행복과 불행이 공간적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저승형의 내세관을 확신하는 것은 사후세계가 선과 악, 행복과 불행이 양극으로 분립되어 존재한다는 천국지옥형의 내세관을 확신하는 것과 내용상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사후세계의 존재를 강하게 믿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은 있지만 얻어진 정보를 최대한 살릴 방향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분류 유형의 의의는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내세관 유형에 따라 각 내세관 특성에 있어 차이가 나는지 여부이다. 현세와 내세의 관계, 내세관의 情意的 측면, 그리고 일반인의 내세관 ‘심리학’이라는 여러 차원에서 유형별로 상이한 특징을 나타낸다면 이 유형분류는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연구 2에서 검토된다. 또 하나는 내세관 유형과 그에 수반되는 내세관 특성이 내세관 이외의 심리적 과정 및 행동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선행 연구에서 내세관과의 관련이 시사된 생명윤리 그리고 인지양식(귀인, 통제소재, 비현실적 낙관성 편향,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신념 등)을 위시한 다양한 심리적 과정 및 행동을 분석하는 틀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후속 연구의 과제이다.

연구 2

인간의 마음을 규정하는 문화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종교와 기타 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는 같은 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종교가 제시하는 내세관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4). 둘째는 제도화된 특정 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어떤 내세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서의 종교유형을 내세관 유형으로 재분류하는 작업은 위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기타 심리과정 및 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추출한 범주와 차원들을 토대로 내세관 설문지를 구성하여, 내세관 유형의 구성 비율을 알아보고, 아울러 종교 유형에 따른 내세관 유형의 구성 비율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내세관 유형에 따라 내세관의 각 특성들이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내세관의 특성으로서는 인과응보론, 신앙결정론, 절대예정론, 현세와 내세의 공간적 관계에 대한 견해, 내세에 대한 관심도와 확신도, 내세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정서 등이 고려될 것이다. 그리고 내세관의 기원과 영향에 관한 '민속 심리학'이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지도 알아봄으로써 내세관 유형별로 내부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연구1에서 선택한 분류 유형의 적절성을 부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방 법

조사 대상자

본 연구에는 K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 수업을 듣는 29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이 중 남자는 179명, 여자는 110명, 성별불명은 1명(평균연령 만 21.5세)이었다. 종교별 분포는 불교인 40명, 천주교인 42명, 개신교인 62명, 기타종교인 5명, 무종교인 140명, 무응답자 1명이었다. 설문 조사는 수업 장면에서 단체로 실시하였다.

설문지 구성

내세관을 알아보기 위해 질적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문항을 구성하였다.

① **내세관 유형:** 내세관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9개의 진술문들의 차이점을 비교하게 한 후, 자신의 견해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유형을 하나만

선택하게 하였다. 단, 괄호 안의 설명은 설문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1.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소멸형).'
2. '사람이 죽으면 사람으로든 동물로든 이 세계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현세지향적 환생형).'
3. '사람이 죽으면 다른 세계로 가지만 경우에 따라 이 세계에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내세지향적 환생형).'
4. '사람이 죽으면 육체만 썩고, 영혼은 저승으로 가서 이승에서 사는 것처럼 산다(저승형).'
5. '사람이 죽으면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간다(하늘나라형).'
6.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중의 한곳으로 가게 된다(천국지옥형).'
7. '사람이 죽으면 천당, 지옥, 연옥 중의 한곳으로 가게 된다(천당연옥지옥형).'
8. '사람이 죽으면 많은 단계가 있는 사후세계로 가고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다층이동형).'
9.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통 모르겠다(불분명형).'

② **현세와 내세의 공간적 관계:** '사후세계의 존재들은 현세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혹은 해를 줄 수도 있다' 라는 문항에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③ **인과응보론:** '선한 삶을 산 사람은 반드시 사후세계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보상을 받으며, 악한 삶을 영위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사후세계에서는 현세에서의 선행이나 악행이 문제되지 않는다(역채점문항)', '이승에서의 업보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이상 개인주의적 인과응보론), '살면서 지은 죄는 후손이라도 죄를 갚아야만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된다(철통적 인과응보론)' 라는 문항에 5점 척도로 평가.

④ **신앙결정론:** '이 세상의 창조주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면 천국으로 가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면 지옥으로 간다' 라는 문항에 5점 척도로 평가. 이 문항들은 기독교인(천주교인과 개신교인)에게만 대담하게 하였다.

⑤ **절대에정론:** '구원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은 이 미 예정되어 있다' 라는 문항에 5점 척도로 평가. 이 문항은 기독교인에게만 대답하게 하였다.

⑥ **내세에 대한 관심도:** '나는 사후세계에 관해서 관심이 있다' 라는 문항에 5점 척도로 평가.

⑦ **내세에 대한 확신도:** '내가 믿는 사후세계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다' 라는 문항에 5점 척도로 평가.

⑧ **내세에 대한 부정적 정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면 왠지 무섭다는 느낌이 든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면 공허함을 느낀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슬픔이 먼저 생각난다' 라는 문항에 5점 척도로 평가.

⑨ **내세에 대한 긍정적 정서:** '사후세계는 나의 희망이다', '사후세계는 나에게 행복이다' 라는 문항에 5점 척도로 평가.

⑩ **내세관의 기원에 관한 일반인의 심리학:** '사후세계를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세계가 고통스럽고 불안스럽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사후세계라고 생각한다' 라는 문항에 5점 척도로 평가.

⑪ **내세관의 영향에 관한 일반인의 심리학:** '사후세계는 정말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현 세계에 대해서 바른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후세계의 존재가 죽음이라는 공포를 어느 정도 경감한다고 생각한다', '죽으면 끝이건 그렇지 않건, 세상사는 데에는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역채점 문항)' 라는 문항에 5점 척도로 평가.

결 과

내세관 유형의 구성 비율

표 2는 대학생들의 전체적 내세관 유형의 구성 비율과 종교별 내세관 유형의 구성 비율을 알아본 결과이다. 전체적 내세관 유형의 구성 비율은 소멸형(13.4%), 현세지향적 환생형(6.6%), 내세지향적 환생형(24.8%), 저승형(4.1%), 하늘나라형(3.4%), 천국지옥형(13.8%), 천당연옥지옥형(4.5%), 다층이동형(3.4%), 불분명형(25.9%)이었다. 비교적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네 가지 유형, 즉 불분명형, 내세지향적 환생형, 천국지옥형, 소멸형이

대학생들의 주요한 내세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내세관 유형의 구성 비율에 관해서 남녀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종교별로 내세관 유형의 구성 비율을 알아본 결과, 같은 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종교가 제시하는 내세관을 수용하는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¹⁾. 불교인의 경우 내세지향적 환생형(35.0%)이 약간 우세하지만,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은 아니고 현세지향적 환생형(15.0%)이나 소멸형(12.5%)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천주교인의 경우 천당연옥지옥형(21.4%)이 약간 우세하지만, 그 못지 않게 내세지향적 환생형(26.2%)도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 불분명형이 많은 편이다(28.6%). 토착화 과정에서 천주교의 전형적 내세관인 천당연옥지옥형의 내세관으로 재래식 내세관을 강력하게 배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세관의 공존상태가 생겨

1) 종교에 따라 신앙심('자신의 신앙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매우 약하다'에서 '매우 강하다'까지의 7점 척도로 평가)와 내세관 관련 특성들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각 종교에서의 내세관의 위치를 시사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즉 천주교인과 불교인의 경우 신앙심과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 사이에는 상관이 없었으나, 개신교인의 경우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5, p<.001$). 그리고 천주교인과 불교인의 경우 신앙심과 자신의 내세관에 대한 확신간에는 낮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나($r=.28, p<.01$; $r=.31, p<.01$) 개신교인의 경우는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5, p<.001$). 이러한 결과는 내세관이 개신교 신앙의 중심적 요소이지만 천주교와 불교 신앙에 있어서는 중심요소라고 하기가 어려움을 시사한다. 사후세계에 대한 정서와 관련하여, 개신교인의 경우는 신앙심이 강할수록 강한 긍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었으나($r=.45, p<.001$) 천주교인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또 천주교인의 경우 신앙심이 강할수록 사후세계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감소되었는데($r=-.44, p<.01$), 사후세계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자신의 내세관에 대한 확신간에 상관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내세관의 영향 때문에 사후세계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심이 다른 경로를 통해 사후세계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개신교인의 경우도 신앙심이 강할수록 사후세계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감소되었는데($r=-.24, p<.10$), 사후세계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자신의 내세관에 대한 확신간에 상관이 있는 것($r=-.36, p<.01$)으로 봐서 그들의 내세관은, 사후세계에 대한 긍정적 정서의 증가뿐만 아니라, 부정적 정서의 감소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불교인의 경우 신앙심과 사후세계에 대한 부정적 정서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표 2. 내세관 유형의 구성 비율

	소멸형	현세지향적 환생형	내세지향적 환생형	저승형	하늘나라형	천국지옥형	천당연옥 지옥형	다층이동형	불분명형
전 체	39 (13.4%)	19 (6.6%)	72 (24.8%)	12 (4.1%)	10 (3.4%)	40 (13.8%)	13 (4.5%)	10 (3.4%)	75 (25.9%)
불 교	5 (12.5%)	6 (15.0%)	14 (35.0%)	2 (5.0%)	2 (5.0%)			2 (5.0%)	9 (22.5%)
천주교	4 (9.5%)		11 (26.2%)		2 (4.8%)	1 (2.4%)	9 (21.4%)	3 (7.1%)	12 (28.6%)
개신교	3 (4.8%)	1 (1.6%)	7 (11.3%)	4 (6.5%)		37 (59.7%)	2 (3.2%)	2 (3.2%)	6 (9.7%)
기타종교		1 (20%)	3 (60%)		1 (20%)				
무종교	27 (19.3%)	11 (7.9%)	37 (26.4%)	6 (4.3%)	4 (3.5%)	2 (1.4%)	2 (1.4%)	3 (2.1%)	48 (34.3%)

주) 백분율은 전체 또는 종교별로 산출한 각 내세관 유형의 비율이며, 가로의 합계가 100%임.

표 3. 내세관 유형별 내세관 특성의 평균 비교

	소멸형	내세지향적 환생형	천국지옥형	불분명형	평균(표준편차)	F
사례수	39	72	40	75	226	(3, 222)
개인적 인과응보론	2.28 a	3.54 c	3.19 bc	2.84 b	3.03(.85)	27.77***
혈통적 인과응보론	2.03 a	2.82 b	2.30 ab	2.33 ab	2.43(1.01)	6.55***
공간적 관계	2.90 a	3.51 b	3.35 ab	3.35 ab	3.32(1.02)	3.20*
관심	2.21 a	3.74 bc	4.08 c	3.43 b	3.43(1.28)	21.08***
확신	2.00 a	2.75 b	4.18 c	1.95 a	2.61(1.22)	57.49***
부정적 정서	2.74 a	2.73 a	2.65 a	2.94 a	2.79(.93)	1.12
긍정적 정서	1.41 a	1.87 b	3.15 c	1.64 ab	1.94(1.00)	37.29***
기원에 관한 '심리학'	3.94 d	2.89 b	2.00 a	3.42 c	3.09(1.02)	43.10***
영향에 관한 '심리학'	2.55 a	3.34 b	4.10 c	2.96 ab	3.21(.98)	24.85***

주) * $p < .05$, *** $p < .001$, 아래 첨자는 Scheffe 사후비교 결과임.

그 영향으로 불분명형이 다소 많은 비율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와 대조적으로 개신교의 경우 전형적 내세관인 천국지옥형(59.7%)의 내세관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세지향적 환생형(11.3%)이나 저승형(6.5%) 등도 어느 정도 존재하였다. 무종교인의 경우는 현세지향적 환생형(7.9%)과 내세지향적 환생형(26.4%)을 포함한 환생형(34.4%)과 소멸형(19.3%) 그리고 불분명형(34.3%)으로 크게 삼분되었다.

다음에서는 사례수가 적은 유형은 제외하고, 대학생들의 주요한 내세관으로 나타난 네 가지 유형, 즉 내세지향적 환생형, 천국지옥형, 소멸형, 불분명형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내세관 유형별 내부구조

각 내세관 유형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 유형별로 내세관 관련 특성들을 긍정하는 사람들(각 특성의 문항 평균이 3보다 큰 사람)의 비율과 내세관 특성 평균의 차이, 그리고 내세관 특성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표 3, 4, 5 참조).

먼저 **내세지향적 환생형**의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이 개인주의적 인과응보론을 믿고 있었고(72.2%), 혈통적 인과응보론을 믿는 사람도 약간의 비율을 보였다(20.8%).²⁾ 혈통적 인과응보론이란 현세의 업보의 결과가 자

2) 개인주의적 인과응보론만을 긍정하는 이러한 경향은 소멸형과 불분명형을 제외한 모든 내세관 유형의 공통적 특징

표 4. 내세관 특성간의 상관관계 I (내세지향적 환생형, 천국지옥형)

천국지옥형 \ 내세지향적 환생형	1	2	3	4	5	6	7	8	9	10
1. 개인적 인과응보론		.32**	.37**	.31**	.32**	-.02	.26*	-.22+	.33**	—
2. 혈통적 인과응보론	.41**		.27*	.09	-.04	-.03	.15	-.12	.10	—
3. 공간적 관계	.00	-.00		.11	.15	.12	-.00	-.09	.14	—
4. 관심	.13	.00	-.11		.36**	.08	.20+	-.20+	.40***	—
5. 확신	-.33*	-.28+	-.03	.37*		-.17	.41***	-.25*	.25*	—
6. 부정적 정서	.24	-.11	.31*	-.23	-.43**		-.17	.18	.09	—
7. 긍정적 정서	-.19	-.18	-.28+	.36*	.62***	-.32*		-.07	.25*	—
8. 기원에 관한 '심리학'	.02	-.06	.22	-.28+	-.39*	.61***	-.37*		-.14	—
9. 영향에 관한 '심리학'	-.04	.04	-.04	.58***	.55***	-.36*	.55***	-.31+		—
10. 신앙결정론	-.21	-.15	.00	.54***	.42**	-.07	.45**	-.29+	.44**	
11. 절대예정론	.00	.08	.24	.04	-.04	.10	-.14	-.05	.15	.25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상단은 내세지향적 환생형, 하단은 천국지옥형의 결과임. 신앙결정론과 절대예정론은 천국지옥형에만 해당되는 내세관 특성임.

표 5. 내세관 특성간의 상관관계 II (소멸형, 불분명형)

불분명형 \ 소멸형	1	2	3	4	5	6	7	8	9
1. 개인적 인과응보론		.19	.01	.12	.05	.01	.24	-.14	-.07
2. 혈통적 인과응보론	.49**		.39*	.01	-.26	.28+	.20	-.16	.45**
3. 공간적 관계	-.02	-.06		-.06	-.10	.01	.25	.07	.03
4. 관심	-.04	-.20+	-.00		.05	.32*	.16	-.19	.18
5. 확신	.11	.09	.06	.13		-.22	.00	-.11	.00
6. 부정적 정서	.03	.15	.10	.16	.16			.04	.41**
7. 긍정적 정서	.14	.07	.03	.13	.22+	.22+	.13		.21
8. 기원에 관한 '심리학'	-.07	.27*	.07	-.29*	-.15	.03	-.09	-.10	
9. 영향에 관한 '심리학'	.05	-.03	.03	.14	.10	.28*	.28*	-.07	-.25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상단은 소멸형, 하단은 불분명형의 결과임.

신의 후손에게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말한다. 자신의 내세관에 대한 확신과 개인주의적 인과응보론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r = .32, p < .01$), 혈통적 인과응보론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보면, 내세지향적 환생형에 있어 개인주의적인 인과응보론은 본질적 요소이지만 혈통적 인과응보론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세와 내세의 공간적 관계에 대해서는, 사후세계의 존재들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62.5%).³⁾ 그러나 이 특성은, 개인주의적 인과응보론이 여러

이었다.
3) 내세지향적 환생형, 저승형, 천국지옥형, 천당연옥지옥형에서는 과반수가 사후세계의 존재들이 현세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혹은 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현세지향적 환생형, 하늘나라형, 다층이동형, 불분명형, 그

내세관 특성들과 상관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내세관에 대한 확신을 비롯한 기타 특성들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변적 역할을 하는 요소로 판단된다.

내세관의 정의적 측면에 관해서는 내세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았으나(75.0%)⁴⁾ 자신의 견해에 대해

리고 소멸형에서는 사후세계의 존재들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태반이었다. 하늘나라형과 다층이동형은 사후세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현세와는 단절되어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4) 내세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대부분의 유형들의 특징이지만 소멸형(20.5%)과 하늘나라형(40.0%)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은 소수이었다. 사후세계의 존재를 부정하는 소멸형에 관해서는 당연한 결과이지만 사후세계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하늘나라형의 이러한 태도는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수이었다(19.4%).⁵⁾ 사후세계를 생각할 때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나(30.6%)⁶⁾ 긍정적 정서를 갖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1.4%).⁷⁾ 다만 사후세계에 대한 긍정적 정서는 내세관에 대한 확신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r=.41, p<.001$) 내세지향적 환생형 내세관의 긍정적 정서에 대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내세관의 기원에 관한 '심리학'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부적응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내세관의 기원이라고 보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나(36.1%)⁸⁾ 이러한 견해는 내세관에 대한 확신이 약할수록($r=-.25, p<.05$), 관심이 적을수록($r=-.20, p<.10$), 개인적 인과응보론을 부정할수록($r=-.22, p<.10$)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세관의 영향에 관한 '심리학'에 대해서는 부정적 정서의 경감이나 도덕성 향상과 같은 긍정적 영향을 인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65.3%).⁹⁾ 이와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변인으로서의 개인주의적 인과응보론($r=.33, p<.01$), 내세에 대한 관심($r=.40, p<.001$), 자신의 내세관에 대한 확신($r=.25, p<.05$), 사후세계에 대한 긍정적 정서($r=.25, p<.05$)가 있다.

천국지옥형에 있어서는 개인주의적 인과응보론을 믿는 사람이 많은 편이었으나(57.5%) 혈통적 인과응보론을 긍정하는 사람은 소수이었다(12.5%). 그러나 자신의 내세관에 대한 확신과 개인주의적 인과응보론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고($r=-.33, p<.05$), 혈통적 인과응보론과도 부적 상관관계($r=-.28, p<.10$)가 있다는 사실은 천국지옥

형에 있어 인과응보론이 비본질적 요소, 또는 이질적 요소인 것을 시사한다. 또 천국지옥형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신앙결정론을 믿고 있었으나(82.1%) 절대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소수이었다(20.5%). 자신의 내세관에 대한 확신과 신앙결정론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r=.42, p<.01$), 절대예정론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보면 천국지옥형에 있어 신앙결정론은 본질적 요소이지만 절대예정론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세와 내세의 공간적 관계에 대해서는 사후세계의 존재들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반반이었는데(50.0%), 자신의 내세관에 대한 확신과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봐서 이 특성은 주변적 요소인 것 같다.

내세관의 정의적 측면에 관해서는 내세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았고(72.5%) 자신의 견해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많았다(80.0%). 사후세계를 생각할 때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나(32.5%), 기타 유형들과는 달리, 긍정적 정서를 갖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40.0%). 부정적 정서는 확신의 결여($r=-.43, p<.01$)나 긍정적 정서의 결여($r=-.32, p<.05$)뿐만 아니라 공간적 관계(사후세계 존재들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정도)와도 상관관계가 있었다($r=.31, p<.05$). 그리고 공간적 관계는 긍정적 정서와도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28, p<.05$). 내세지향적 환생형의 경우는 공간적 관계가 사후세계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및 긍정적 정서와 상관관계가 없었는데, 천국지옥형에 있어서는 일정한 정서적 영향력을 갖는 변인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으로서의 자신의 내세관에 대한 확신($r=.62, p<.001$), 신앙결정론($r=.45, p<.01$), 내세에 대한 관심($r=.36, p<.05$) 등이 있다.

내세관의 기원에 관한 '심리학'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부적응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내세관의 기원이라고 보는 경우는 소수이었으나(12.5%), 이러한 견해는, 내세지향적 환생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세관에 대한 확신이 약할수록($r=-.39, p<.05$), 관심이 적을수록($r=-.28, p<.10$), 신앙결정론을 부정할수록($r=-.29, p<.10$)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천국지옥형에 있어서는 부정적 정서가 강할수록($r=.61, p<.001$), 그리고 긍정적 정서가 약할수록($r=-.37, p<.05$) 이러한 견해가

5) 이것은 내세지향적 환생형에서 뿐만 아니라 저승형, 하늘나라형, 소멸형, 불분명형에서도 확인된 특징이다. 그러나 현세지향적 환생형, 천국지옥형, 천당연옥지옥형, 다층이동형에서는 자신의 내세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6) 사후세계에 대해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사람은 어느 유형에서도 그리 많지 않았으나 저승형에서는 예외적으로 과반수(66.7%)가 부정적 정서를 느낀다고 보고했다.

7) 기타 유형에서도 긍정적 정서를 갖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유독 천국지옥형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율(40.0%)을 차지하고 있었다.

8) 이와 대조적으로 소멸형과 불분명형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적응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내세관의 기원이라고 보는 경우가 우세했다.

9) 이러한 경향은 소멸형과 불분명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특징이다.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내세지향적 환생형의 경우와 달리 천국지옥형에 있어서는 내세관의 기원에 관한 '심리학'이 사후세계에 대한 정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형성되는 것을 시사한다. 내세관의 영향에 관한 '심리학'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92.5%), 이러한 견해는, 내세지향적 환생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세관에 대한 확신이 강할수록($r=.55, p<.001$), 관심이 많을수록($r=.58, p<.001$), 신앙결정론을 강하게 긍정할수록($r=.44, p<.01$), 그리고 긍정적 정서가 강할수록($r=.55, p<.001$)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세지향적 환생형의 경우와 달리 천국지옥형에 있어서는 내세관의 영향에 관한 '심리학'이 사후세계에 대한 부정적 정서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r=-.36, p<.05$).

불분명형의 경우 인과응보론을 믿는 사람은 소수이었으며(21.3%) 혈통적 인과응보론을 긍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5.3%). 현세와 내세의 공간적 관계에 대해서 사후세계의 존재들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견해는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46.7%). 내세관의 정의적 측면에 관해서는 내세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 비교적 많은 편이었으나(52.0%),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거의 없었다(1.3%). 사후세계를 생각할 때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42.7%) 긍정적 정서를 갖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1.3%). 내세관의 기원에 관한 '심리학'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부적응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내세관의 기원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고(60.0%) 내세관의 영향에 관한 '심리학'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을 인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았다(42.7%). 단 내세지향적 환생형이나 천국지옥형의 경우와는 달리 부정적 정서가 강할수록($r=.28, p<.05$) 내세관의 긍정적 영향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세지향적 환생형이나 천국지옥형의 경우와는 달리, 내세관 특성간의 상관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불분명형 내세관의 비구조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소멸형의 경우는 대부분의 내세관 특성을 부정하고 있었고 특성간 상관관계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인과응보론을 믿

는 사람은 소수이었고(15.4%) 혈통적 인과응보론을 긍정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5.1%). 현세와 내세의 공간적 관계에 대해서 사후세계의 존재들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견해는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41.0%). 이것은 소멸형의 내세관과 모순되는 결과이며 해석하기 어렵다. 내세관의 정의적 측면에 관해서 내세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소수이었고(20.5%),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소수이었다(17.9%)는 점을 감안해서 해석해 본다면, 평상시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설문내용을 충분히 판별하지 못했거나,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면서도 확신이 없어서 다른 문항에서는 그와 모순되는 대답을 한 가능성이 있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38.5%), 이러한 부정적 정서가 강한 사람일수록 내세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r=.32, p<.05$). 이것은 소멸형만의 특징이다. 긍정적 정서를 갖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내세관의 기원에 관한 '심리학'에 대해서는 현실에 대한 부적응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내세관의 기원이라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74.4%), 그러한 신념은 불분명형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세관의 영향에 관한 '심리학'에 대해서 긍정적 영향을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30.8%). 내세관의 '심리학'에 관한 이러한 패턴은 불분명형의 그것과 동일하며, 뚜렷한 내세관의 부재와 관련이 있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내세지향적 환생형이나 천국지옥형의 경우와는 달리 부정적 정서가 강할수록($r=.41, p<.01$), 내세관의 긍정적 영향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연구 2에서는 대학생들의 내세관 유형의 구성 비율을 알아보고, 아울러 종교 유형에 따른 내세관 유형의 구성 비율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내세관 유형에 따라 내세관의 각 특성들이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내세관 유형별 내부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연구 1의 결과도 참조하면서 연구 2의 결과를 내세관 유형의 구성비율, 내세관의 내부구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겠다.

내세관 유형의 구성 비율

대학생들의 주된 내세관 유형은 불분명형(25.9%), 내세지향적 환생형(24.8%), 천국지옥형(13.8%), 소멸형(13.4%)의 네 가지 유형들이었으며, 현세지향적 환생형(6.6%), 저승형(4.1%), 하늘나라형(3.4%), 천당연옥지옥형(4.5%), 다층이동형(3.4%)과 같은 나머지 유형들은 비교적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성비율을 근거로 네 가지 주요 유형들에 대해서 주로 분석하였으나, 나머지 유형들에 대해서도 사례수를 늘려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유형들도 나름대로의 흥미로운 특징을 보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저승형의 사람들은 기타 유형들과 달리 사후세계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하늘나라형의 사람들은 사후세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현세와 단절되어 있다고 보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현세지향적 환생형과 다층이동형의 사람들은 천국지옥형의 경우처럼 자신의 내세관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다. 이러한 특징들의 신뢰성 및 수반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후속 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내세관을 분류할 때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있음-없음), 형태적 동일성(연속-전환), 공간적 지향성(현세지향-내세지향), 공간의 윤리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통해 아홉 기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나, 다른 분류 기준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사후세계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사후세계는 있다', '사후세계는 없다', '모르겠다'의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분류는 현세지향적 환생형을 소멸형과 함께 '사후세계는 없다'에 분류하는 것의 타당성이 문제가 되지만, 연구 2의 분석에서 제외된 22%의 사람들(현세지향적 환생형, 저승형, 하늘나라형, 천당연옥지옥형, 다층이동형)을 모두 포함시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연구 1에서도 논의했듯이 인과응보론과 신앙결정론이라는 비교적 독립적인 두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을 구별하는 것도 하나의 분석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인과응보를 중요시하고 자력 구원을 강조하는 자력본원형(自力本願型), 절대자의 은혜를 중요시하고 타력 구원을 강조하는 타력본원형(他力本願型), 인과응보론과 신앙결정론을 동시에

수용하는 자력-타력병행형(自力-他力並行型), 이러한 신념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력-타력부정형(自力-他力否定型)으로 재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구분으로 다른 심리학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도 시도해볼 만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종교별로 내세관 유형의 구성 비율을 알아본 결과 개신교인의 경우는 과반수(59.7%)가 천국지옥형의 내세관을 지지하고 있었으나, 그 외의 불교인, 천주교인, 무종교인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전형적인 내세관은 없었고 여러 유형들로 분산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세관과 심리적 과정의 관계를 분석할 때 내세관의 지표로서 종교 유형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처럼 내세관 유형과 특성 같은 구체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내세관은 비록 세계관의 한 측면에 불과하더라도 거기에 내포되는 내용이 밝혀진다면, 그 동안 추론에 머물렀던 세계관과 심리적 과정의 관계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각 내세관 유형의 내부구조

네 가지 주요 유형들에 대해 내세관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유형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났다. 뚜렷한 내세관이 있는 내세지향적 환생형과 천국지옥형이 몇 가지 유사한 점을 보였고, 뚜렷한 내세관이 없는 불분명형과 사후세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소멸형이 비교적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세지향적 환생형의 내세관이란 "사람이 죽으면 다른 세계로 가지만 경우에 따라 이 세계에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는 신념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다른 세계에서 다른 나로서 살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며 "지금 이 세계 말고 내가 가야할 곳" 또한 있다고 본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 세계에서든 비슷하게 살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한편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거나 "이승에 꼭 필요한" 경우 "현생으로 다시 환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내세관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인과응보에 대한 신뢰이다. "(현세에서) 정신세계가 얼마나 깨

못하고 정직하였나에 따라서 (내세에서) 집의 위치가 달라질 것이며 형태 또한 변할 것"이다. "지금 죄를 지으면 이번 생이든 다음 생이든 반드시 그 빛을 갚아야만" 하는 것이다. 또 "전생에 살아온 내용에 따라 그 과보를 받으니 동물의 몸을 받기도 하고 사람의 몸을 받기도 하는 등 자기가 한 과보대로 다음 생의 몸을 받는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내세지향적 환생형의 내세관에는 "내가 죽어서 저 하늘로 가게 된다면 이 세상을 내려다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양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 사람들이 가족이나 돕고 싶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해를 주기도 한다"는 견해가 수반된다. 즉 내세는 현세와 중복되어 있고 내세에서 현세를 관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후세계의 존재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인과응보를 굳게 믿을수록 강해지지만 정서적 영향력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국지옥형의 내세관이란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중의 한곳으로 가게 된다"는 신념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내가 죽은 후에는 아마 천국과 지옥 가운데서 천국에 있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이 세상의 창조주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신앙결정론적 신념이 있는 것이다. 인과응보론을 믿는 사람도 적지 않았으나 천국지옥형의 내세관을 굳게 믿을수록 인과응보의 법에 대한 믿음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천국지옥형에 있어 인과응보론은 비본질적 요소, 또는 이질적 요소인 것이다. 천국지옥형의 사람들도 내세는 현세와 중복되어 있고 내세에서 현세를 관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후세계의 존재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생각을 내세지향적 환생형 못지 않게 지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신념을 강하게 가질수록 사후세계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강해지고 긍정적 정서는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천국지옥형의 내세관에 있어서는 사후세계의 존재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체로 안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져 있어서 내세와 현세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신념이 부정적 방향으로의 정서적 영향력을 갖는 변인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내세지향적 환생형과 천국지옥형의 사람들은 대체로 내세에 대해 관심이 있는 편이었으나 자신의 견해에 대한 확신에 관해서는 차이가 있었다. 즉 내세지향적 환생형의 경우 자신의 견해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수이었지만 천국지옥형의 경우 자신의 견해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이었다. 또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내세지향적 환생형과 달리 천국지옥형의 경우 긍정적 정서를 갖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세관의 기원에 관해 현실에 대한 부적응과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내세관의 기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반면 내세관의 영향에 관해서는 "사후세계는 정말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현 세계에 대해서 바른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과 "사후세계의 존재가 죽음이라는 공포를 어느 정도 경감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단 그 정도에 있어서는 천국지옥형이 더 극단적이었다.

불분명형의 내세관이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통 모르겠다"는 것이며 소멸형의 내세관이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은 상당히 많은 유사점을 보였다. 즉 불분명형의 경우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없었는데 소멸형의 경우도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수이었다. 단 내세에 대한 관심에 관해서는 불분명형의 사람들이 소멸형의 사람들보다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유형 모두 사후세계를 생각할 때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긍정적 정서를 갖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또 두 유형 모두 인과응보론을 믿는 사람은 소수이었으나 사후세계의 존재들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내세관의 기원에 관해서는 "사후세계를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세계가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기 때문"이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사후세계라고 생각한다"고 보고 있었고, 내세관의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정서의 경감과 도덕성 향상과 같은 긍정적 영향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내세지향적 환생형이나 천국지옥형의 경우와

는 달리 불분명형과 소멸형의 경우는 부정적 정서가 강할수록 내세관의 긍정적 영향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뚜렷한 내세관이 없거나 사후세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경우, 사후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강해지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효력이 있는 확실한 내세관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 그것이 남의 내세관에 투사되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 1, 2를 통해 한국인의 마음속에 있는 내세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질적 방법을 사용하여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후세계에 대한 표상을 분석하고, 내세관의 유형과 특성을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를 토대로 내세관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구성하여, 양적 방법을 사용해서 내세관 유형의 구성 비율과 내세관 유형별 내부구조를 밝혔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내세관 유형과 내부구조는 한국인 전체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 연구 2의 조사 대상자는 일부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연령의 비대학생 집단이나 다른 세대에까지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남자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세대로부터 사후세계에 대한 표상을 수집하고 본 연구에서 추출된 내세관 유형이나 특성의 보편성에 대해 검토함과 동시에 대학생 이외의 사람들이 갖는 주요 내세관 유형과 내부구조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인의 내세관에 대한 본 연구의 접근법은 현대 일반인의 사회적 표상에 근거한 개념화의 시도이며, 최상진(1999)의 '아래에서 위로의 접근', 한규석(1999)의 '토착심리학적 연구', 조금호(1990)의 '한국 문화에서의 독특한 행동과 특성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작업' 등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대인을 대상으로 한 내세관 연구는 문화적 뿌리에 대한 고찰, 즉 문화적 대표성을 갖는 역사적 인물의 내세관에 대한 연구, 그리고 역사적 인물의 '내세관의 심리학'에 대한 연구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

한 '위에서 아래로의 접근'(최상진, 1999), '한국사상의 심리학적 연구'(한규석, 1999), 또는 '동양 고전의 심리학적 해석 작업'(조금호, 1999)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연구는 현대 한국인이 갖는 내세관의 위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각 내세관이 개인의 마음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선행조건들이 구명될 필요가 있다. 개인과 그의 가족이 소속하는 종교의 교리, 대중매체에 나타난 내세관과 관련이 있는 내용, 개인적 생활 경험 등의 요인과 내세관의 관계가 해명된다면 내세관의 의의나 기능에 대한 이해가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직까지 한국인의 내세관과 사회심리학적 변인간의 관련성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 만일 이들간에 어떤 관련성이 나타난다면 내세관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내세관의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문제는 차후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즉, 위와 같은 내세관 유형에 대한 개념구성을 토대로 하여 인지양식, 생활방식, 그리고 생명윤리 등, 구체적인 심리적 과정의 하위문화간 차이를 예측하고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 하겠다.

참고 문헌

- 丹下智香子(단계 치카코) (1998). 身體部位提供への協力の意志と死に對する態度の關聯 - 大學生と看護學生の比較 -. 名古屋大學教育學部紀要 - 教育心理學科 -, 45, 17-26.
- 오경환(1990). 종교사회학(개정판). 서울: 서광사.
- 이누미야 요시유키 · 최일호 · 윤덕환 · 서동효 · 한성열 (1999). 비현실적 낙관성(unrealistic optimism) 경향에 있어서의 비교 문화 연구: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183-201.
- 池口惠觀(이케구치 애칸) (1998). 臟器移植に關する日本人の意識構造(第1報) - 死生觀を構成する背景要因について -. 民族衛生 64(3), 161-182.
- 조금호(1990). 맹자에 나타난 심리학적 함의(I) : 인성론

- 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59-81.
- 최준식(1998).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1, 2. 서울: 세계절출판사.
- 최상진(1999). 동양심리학의 학문패러다임적 정위(正位): 문화심리학. 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궁호, 이수원(공저). 동양심리학: 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안 모색. 서울: 지식사업사. 9-20.
- 최상진·김기범(1999). 한국인의 Self의 특성: 서구의 self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75-292.
-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198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 의식, 320.
- 한규석(1999). 한국적 심리학의 전개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 하계심포지움: 문화와 심리학. 8월 20일, 연세대학교 103-127.
- 한규석·신수진(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 -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Gilbert, D. T., Krull, D. S. (1988). Seeing less and Knowing more. The benefits of perceptual ignor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93-202.
- Glaser, B. G., & Strauss, A. 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Aldine.
- Henwood, K. L., & Pidgeon, N. F. (1992). Qualitative research and psychological theorizing.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3, 97-111.
- Lerner, M. 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A fundamental delusion*. New York: Plenum Press.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orris, M. W., & Peng, K. (1994) Culture and cause: American and Chinese attributions for social and physical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949-971.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Whole No. 609), 1-28.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SAGE
- Tri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J. Berman (Ed.),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Lincoln, NB: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Weber, M. (1920).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SS. 17-206. (大塚久雄 오츠카히사오 譯, 1989, 프로테스탄티즘의倫理와資本主義의精神 東京: 岩波書店.)

An Exploratory Study on the Korean View of the Afterlife

Yoshiyuki Inumiya*, Il-Ho Choi and Seong-Yeul Han***

*Korea University and **Myongji University

View of the afterlife has been ignored by cultural psychologists, though it is an important factor of a cultu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afterlife views. And we tried to explore its inner structure of each type. In study 1, we drew out four categories through Grounded Theory Approach. First, on "the types for the view of the afterlife", we classified 9 types, namely, 'extinction type', 'the present world-oriented transmigration type', 'the other world-oriented transmigration type', 'the other world type', 'heavenly home type', 'heaven/hell type', 'heaven/purgatory/hell type', 'multi layer transference type' and 'obscurity type'. Second, on "the relations between this world and the next", we grasped two subcategories, namely, 'temporal relation(karma, faith determinism, absolute predestination)' and 'spatial relation'. Third, on "the intentional and emotional aspects", we extracted 'degree of interest', 'firmness' and 'emotional color'. Fourth, about "folk psychology of the afterlife views", we could classify two psychologies, namely, 'psychology on its origin' and 'psychology on its effect'. In study 2, depending on results from study 1, we constructed questionnaire which measures the types and features of the view of the afterlife. And we analyzed the component ratio and each inner-structure of the types for the view of the afterlife. Finally, we discussed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study.

Keywords: afterlife views, grounded theory approach, Korean

원고 접수: 2000년 7월 10일
수정 원고 접수: 2000년 12월 30일
심사 통과: 2001년 2월 7일